

## 네트워크 세계정치

#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낸이 오연천

엮은이 하영선·김상배

초판 1쇄 인쇄 2010년 11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1월 30일

출판등록 제15-3호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우편번호 151-742

대표전화 02-880-5252 팩스 02-888-4148

마케팅팀(주문상담) 02-889-4424, 02-880-7995

이메일 snubook@snu.ac.kr

홈페이지 www.snupress.com

영문홈페이지 eng.snupress.com

© 하영선·김상배 엮음·2010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ISBN 978-89-521-1119-7 94340

세트 978-89-521-1029-9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9

#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하영선·김상배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World Politics of Networks

From Metaphor to Analysis

Young-Sun Ha and Sangbae Kim ed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남북교류가 증대하면서 21세기 한반도의 창조적 미래구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통일과정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통일 문제에 맞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총체적인 시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통일과정에 돌입했을 때 그 전 과정을 적절히 관리할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통일논의가 구체화되고 정책적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에 적합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한국 지식인의 책무일 것이다. 반세기 이상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해 온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적절히 통합하고 전쟁의 상처와 오랜 대립에서 비롯되는 적대감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획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을 바람직한 동북아 지역질서와 연계시키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도 지식인들의 높은 식견과 섬세한 대응역량이 없이는 불가

능하다.

서울대학교는 2003년부터 통일학 연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우리 사회의 지적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진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통일연구사업은 북한에 대한 지역연구 차원을 넘어서 통일과정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을 학제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환경의 영역은 물론이고 농학과 의학, 과학기술과 예술 및 체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 일을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종합학문으로서의 통일학을 정립하고자 애쓰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는 이러한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다. 이 총서가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역사적 장정에 긴요한 지적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통일연구의 시대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사업의 제도적 바탕을 마련해 주신 정운찬 전 총장님과 변함없이 이 연구사업을 지원, 격려해 주시는 이장무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06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출판위원회

## 머리말

이 책은 정보세계정치연구회(이하 정세연)의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작품 집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미리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2000년 어느 봄날에 시작했던 세미나 모임이 열 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펴 나오게 되었으니 말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이 책에 담긴 문제의식도 지난 1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며 성숙해 왔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은 정보화와 사이버 공간, 네트워크 지식국가, 동아시아 지식질서,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21세기 권력 등으로 이어지는 지적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다섯 번째의 작은 결실이다. 이제 다시 떠나야 하는 여섯 번째 여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도 지난 10년 동안 밟아 온 징검다리들의 흔적을 잠시 돌아보려고 한다.

이 책에 담긴 문제의식의 첫 번째 싹은 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이라는 현상에 대한 탐구심의 토양에서 자라났다.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국제정치의 공간으로 예지(豫知)한 정세연의 세미나는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해제』(이슈투데이 2001)라는 작은 열매를 맺었다. 세계정치의 각 분야별로 관련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간략한 해제를 붙이는 작업이었다. 세계정치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을 탐구한 몇 편의 논문도 실렸다. 당시 소개된 세계정치 사이트와 해제는 2006년 3월에 이르러 〈국제정치 포털: 변환의 세계정치〉라는 제목으로 사이버 공간(<http://www.worldpolitics.net>)에 옮겨 놓은 바 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이 각광받기 훨씬 이전에 ‘지식정보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지닌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조명했던

선구적 시도였다고 자평해 본다.

뒤이은 정세연의 세미나는 상당한 암중모색의 시절을 보냈다. ‘사이버 모임’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던 모임의 명칭이 ‘정보세계정치연구회’라고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2002-2003년에 걸쳐서 정보화와 세계정치의 ‘구성적 변환’을 다룬 해외 학계의 글들을 군사, 경제, 문화, 환경, 지식, 정치 등의 분야별로 서로 나누어 읽고 그 중에서 나온 것을 추려서 편집본을 펴낼 구상을 했었다. 당시 국제적으로도 아직 이렇다 할 단행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집필하고 아직 그럴 역량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번역을 해서라도 정보세계정치학의 전체적인 구도를 국내에 소개하려는 욕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19세기 말과 같은 ‘번역의 국제정치학’을 시도하기에는 21세기 초의 국내의 여건은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을까?

정세연의 두 번째 작품은 모임의 회원들이 다수 참여했던 외부 작업을 계기로 태어났다. 이 책의 공동편집자인 하영선 선생님이 기획했던, ‘19세기 국망(國亡)을 넘어서 21세기 국흥(國興)의 모색’이라는 특집이 2003년 하반기에 11차례에 걸쳐서 『주간조선』의 지면에 연재된 것이 그 계기였다. 이렇게 초벌 집필된 글들은 2004년 3-5월의 협업적 검토를 거쳐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폴빛, 2004)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 이 얇은 책이 지닌 의의는 책의 출간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이후 좀 더 학술적인 모습의 작업을 추진할 동기를 정세연 세미나에 불어 넣은 데 있었다. 실제로 그 시도는 2004-2006년의 정세연 세미나에서 구체화되었고,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으로 결실을 맺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정세연의 초창기부터 탐구되었던 정보세계정치의 어젠다에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테마가 접목된 작업이었다. 정보화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세계정치의 변환을 경험적·이론적으로 천착함으로써 ‘네트워크 지식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적



좌표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시도가 남긴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전통 국제정치이론 진영에서 제기하는 반론에 맞서는 과정에서 19세기의 경험과 21세기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대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주로 은유의 차원에서 원용함으로써 득과 실이 나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정치학의 일반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나름대로의 소득이었다면, 분석이론으로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개발과 적용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작업이 정세연 세미나를 한 단계 높은 지평에 올려놓았음은 분명하다.

정세연 세미나에서 세 번째로 가치를 친 어젠다는 ‘지식’으로 본 세계질서, 즉 지식질서였다. 21세기 권력자원으로 거론되는 ‘지식’ 변수를 지표로 하여 세계질서의 권력지도를 그리면 어떠한 모습일까? 이러한 지식질서의 구도에서 소위 IT강국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디쯤일까?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중심으로 파악한 질서의 판세가 21세기 세계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쯤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네트워크 지식국가』 이후 2006-2007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정세연 세미나의 담론을 지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던 ‘동아시아 담론’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로 출현한 것이 바로 동아시아 지식질서 연구였다.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이 연구는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한울, 2008)이라는 책으로 엮여서 세상에 나왔다.

『지식질서와 동아시아』는 짧은 기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야 했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서둘러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외 학계의 일천한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지식질서와 동아시아』가 구상했던 연구의 스케일이 다소 거창하게 설정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남겨놓은 문제의식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있어 언젠가는 다시 등불을 밝힐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권력이 세계정치의 현실에 실제로 투영되는

양상을 지식질서라는 개념에 비추어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질서 연구 위에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가 얹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질서를 계량적으로 이해하는 지표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수집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질서의 탐구에 던진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의 화두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2008-2009년에 걸친 정세연 세미나의 메뉴로 올라온 네 번째 어젠다는 21세기 권력론이었다. 이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환하는 권력을 어떠한 개념으로 잡아낼 것이냐?’라는 정세연 회원들의 오랜 고민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6월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인터넷 권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의 형태로 정세연 세미나의 전면에 부상했다. 촛불집회는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에서 제기되었던 ‘지식’ 변수의 독립변수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한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에서 창발한 네티즌들의 복합네트워크를 제쳐두고 촛불집회의 세계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세연의 21세기 권력에 대한 토론은 위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생성되는 ‘네트워크 권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21세기 권력론에 대한 토론은 정세연 자체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정세연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외부에서 진행했던 다른 모임들의 작업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낳았다. 사실 21세기 권력에 대한 고민은 2005년 무렵부터 소프트 파워의 비판적 수용을 지향했던 ‘매력(魅力)’ 연구의 형태로 숙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의 결실들은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평화포럼21, 2005)과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지식마당, 2007)의 형태로 맺어진 바 있다. 또한 실천론의 색채가 강했던 매력 연구를 보완하는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여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한

을, 2009)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작업은 해외 학계에서 제기된 개념의 단순한 수입 차원을 넘어서 기존의 지식권력에 대한 논의에다가 네트워크 시각에서 본 권력론을 접맥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세연의 다섯 번째 작품인 이 책은 앞서 살펴본 네 개의 징검다리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적 여정의 경험들을 종합해서 담아낸 의미가 있다. 이렇듯 이 책의 모태는 정세연에서 진행된 토론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정작 구체적인 작업을 시발하게 된 계기는 정세연의 외부로부터 왔다. 2008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저널특집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2008년 봄·여름호)를 펴내면서 참여했던 필자들이 의기투합하여 연구의 범위를 네트워크 세계정치 일반으로 확장시키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확장의 시도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인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주변 4망(網)의 국가전략: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로 연결되었다. 그 이후 연구 참여진이 정세연의 회원 전체로 확장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편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네트워크 지식국가』에서 시도되었던, 주로 은유로서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하는 수준의 작업이 좀 더 분석적인 차원으로 승격되는 의미를 갖는다. 책의 구성도 그 동안 다듬어진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여 서두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전략과 행위자 및 구조의 차원에서 본 세계정치의 변환을 살펴보는 구도로 본론이 구성되었다. 실제로는 2009년 8월에 거의 모든 원고들이 탈고되었으나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결과보고 일정과 출판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출판을 기다리는 동안 몇몇 논문들이 저널에 출판되기도 하였으나 이 책을 위해 원래 기획되었던 것들임을 밝혀 둔다. 1년 여의 시간을 묵히는 동안 해외 학계에서도 유명 저널에 관련 분야를 소개하는 논문이 실리기도 하고, 이 책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편집본이 출간되는 등 연구 어젠다의 선점을 위한 국제적 지식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감회를 새

롭게 한다.

다시 한 번 정세연 공부의 좌표를 설정한 의미를 갖는 이 책의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정세연의 여섯 번째 징검다리는 어디에 놓아야 할까? 아마도 『네트워크 지식국가』와 『네트워크 세계정치』를 뛰어넘는 좀 더 본격적인 분석서의 출간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네트워크의 은유를 넘어서 소개한 분석개념이나 사회연결망분석 등의 국제정치학적 적용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개념과 방법론을 한반도 주변정치의 경험적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은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중견국 한국의 미래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와중에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넘어서 21세기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보편성을 담아내는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세연 세미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집합지성’의 산물인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모임의 안팎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쉬웠던 지적 협업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의 공동편집자인 하영선 선생님께는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책의 출판을 물심양면에서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세연의 간사를 맡아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의 장예진과 김윤희의 수고도 고맙다. 이 밖에도 일일이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음 작업의 결실을 맺겠다는 약속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 1일

필진의 중지(衆智)를 모아

김 상 배

## 차례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 · v

머리말 · vii

### 서론 복합네트워크 세계정치학: 은유에서 분석으로 \_하영선

1. 머리말 · 1
2. 한국 국제정치학 제1기: 개화기의 양절론 · 3
3. 한국 국제정치학 제2기: 식민지기의 국제협조론 비판 · 4
4. 한국 국제정치학 제3기: 근대국가건설기의 전진민족주의론 · 6
5. 한국 국제정치학 제4기: 복합기의 복합그물망세계정치론 · 8
6. 이 책의 구성 · 10

## 제 I 부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분석틀

### 제1장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_김상배

1. 머리말 · 23
2. 네트워크 시대의 국제정치이론 · 28
3. 네트워크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 35
4.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 49
5. 맺음말 · 63

### 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세계정치 \_김상배

1. 머리말 · 67
2. 네트워크로 보는 연구주제 · 70
3. 동아시아 세력망의 작동메커니즘 · 76
4. 동아시아 네트워크 국가의 관리양식 · 84
5.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아키텍처 · 91

6. 맺음말 · 97

**제3장 네트워크로 보는 한반도 통일론** \_전재성

1. 머리말 · 101
2. 통일의 개념 · 103
3.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본 통일 · 109
4. 남북관계이론의 시각에서 본 통일론 · 119
5.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통일론 시도 · 122
6. 맺음말 · 128

**제Ⅱ부 네트워크 국가전략**

**제4장 미국의 네트워크 동맹전략과 동아시아** \_신성호

1. 머리말 · 133
2. 네트워크 전략과 네트워크 테러 · 134
3. 네트워크 테러에 대한 미국의 동맹전략 · 142
4. 네트워크 동맹과 동아시아 · 149
5. 맺음말 · 158

**제5장 정부간협의체의 확산과 미국의 네트워크 패권전략** \_김치욱

1. 머리말 · 161
2. 패권과 국제경제질서 · 163
3. 정부간협의체와 네트워크 패권 · 166
4. 미국의 네트워크 패권전략 · 173
5. 맺음말: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184

**제6장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푸틴시기 에너지수송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_신범식

1. 머리말 · 187
2. 러시아 에너지외교와 에너지수송 네트워크 · 190
3. 러시아의 에너지외교: 지전략적 해석 · 199
4. 러시아의 에너지수송망 구축사업: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적 해석 · 211
5. 맺음말 · 220

**제7장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_손열

1. 머리말 · 225
2. 지역의 네트워크 · 229
3. 동맹의 네트워크 · 233
4. 일본의 현실 · 237
5. 네트워크 전략의 모색 · 239
6. 맺음말 · 243

**제Ⅲ부 네트워크 행위자의 도전**

**제8장 세계 금융네트워크의 암흑면:**

**미국발 국제금융 사기사건의 분석** \_이왕희

1. 머리말 · 247
2. 네트워크 분석 · 250
3. 세계금융네트워크 · 255
4. 폰지 방식 네트워크 · 261
5. 맺음말 · 274

**제9장 동아시아 환경네트워크와 국가권력: 중국의 사례** \_신상범

1. 머리말 · 277
2. 이론적 논의들 · 281
3. 동아시아 환경네트워크의 사례들 · 286
4. 동아시아의 환경거버넌스와 환경네트워크 · 293
5. 맺음말 · 297

**제10장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인권문제: 중국과 북한의 사례** \_정연정

1. 머리말 · 299
2. 시민사회 네트워크론 일반 · 302
3. 중국의 인권문제 · 305
4. 북한의 인권문제 · 313
5. 맺음말 · 323

## 제Ⅳ부 네트워크의 구조와 작동방식

### 제11장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_김형민

1. 머리말 · 327
2.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분석방법 · 329
3.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국제체계 차원 · 335
4.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아시아지역 차원 · 343
5. 맺음말 · 349

### 제12장 네트워크로 보는 북핵의 국제정치: 베이징 6자회담의 사례 \_황지환

1. 머리말: 동북아 안보구조와 북핵문제 · 353
2. 세계안보질서의 네트워크적 변환과 동북아 안보구조 · 356
3. 네트워크 국제정치학과 6자회담 · 361
4. 6자회담의 네트워크적 성격 · 365
5. 맺음말 · 374

### 제13장 일본의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의 변화 \_이승주

1. 머리말 · 377
2. 일본 생산네트워크의 특징과 형성 과정 · 380
3. 일본 생산네트워크의 변화: 산업부문별 생산 네트워크의 분석 · 387
4.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일본의 FTA 전략 · 396
5. 맺음말 · 401

### 결론 복합네트워크 전략의 모색 \_하영선

1. 21세기 동아시아의 세력망 구조 · 405
2. 한국의 복합그물망 짜기 전략 · 408
3. 그물망국가의 3층복합무대 연기 · 413
4. 복합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실천과제 · 415

참고문헌 · 417

찾아보기 · 455

Abstract · 461